

한중사회과학학회 2008년 동계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

-조철 연구위원(연구조정실)

1. 출장 개요

- 출장지: 중국 청도
- 출장기간: 2008년 12월 12일~12월 13일
- 출장자: 조철(연구위원, 연구조정실)

2. 출장 목적

- 한중사회과학학회 2008년 동계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
-"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추이와 한중협력 방향" 주제 발표

3. 주요 조사내용

중국 청도지역의 경제상황 및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
응답

1. 2009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및 청도시의 상황

-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2009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9%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(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劉瑞교수, 국제회의 중국측 발표자)
- 이러한 견해는 사회과학원, 국무원 발전중심 등 관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북경대 등 주요 대학의 경제학자들도 최근 일관되게 9%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, 전체적인 체감경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
-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내수 진작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
- 교남시(膠南市; 청도시 주변도시) 및 경제개발구 관계자는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가 청도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, 철수하는 기업들도 많지 않다고 주장
- 일부 수출기업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내수기업이나 고기술기업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견해
- 전만항의 관계자도 처리하는 물동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
- 그러나 여타 다른 부문의 관련자들의 견해는 최근 금융위기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한국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
- 지역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경기 침체를 실감

2.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

○ 중국진출 한국 자동차업체의 문제점

- 2008년 4월 제2공장이 완공되어 본격생산에 들어갔지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판매는 크게 늘지 못해 중국진출 한국 자동차업체의 어려움이 예상
- 브랜드 인지도의 문제로 실질적인 실력(기능, 품질 등)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
- 연비가 좋지 않다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데, 최근 중국의 유류세 도입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
- 중국과 같은 개도국 시장은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대하기 힘들며, 선진국 시장에서 일등제품이 되지 않으면 중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음.
- 따라서 단시간 내에 평가가 향상되길 기대하지 말고 지속적인 품질 및 기능 향상, 중국 현지에 맞는 디자인 개발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
- 생산차종의 전략도 그룹 내 다른 기업간 차별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.

○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평가

-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평가는 중국 독자브랜드 기업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, 아직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- 중국 독자업체들이 아직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, 특히 핵심부품의 경우 대부분 선진 자동차부품업체에 의존하는 실정

- 중국 정부 및 자동차관련 전문가들도 핵심부품을 통해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.
- 따라서 독자적인 자동차변속기 개발 등을 국가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부문에 대해 관심을 집중
- 하이브리드, 연료전지, 전기 자동차 등은 선진국들도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국이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발 및 생산에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
- 현재 비야디 등 중국 독자업체들도 이에 부응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개발 및 생산에 노력을 집중 ☞